

성 토마스의 불신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
1601~1602, 캔버스에 유채, 107x146cm
상수시 궁전, 독일 포츠담

입당 송 |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4,32-35

화답 송 | 시편 118(117),2-4.16-18.22-24(© 1)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대!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대!”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 1요한 5,1-6

복음환호송 | 요한 20,29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 요한 20,19-31

영성체송 | 요한 20,27 참조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봄별처럼 다가오시는 예수님



손희승 베네딕토 주교 | 의정부교구장 임명자

따뜻한 봄별은 언 땅을 녹이고 새싹과 꽃 몽우리가 돋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봄별처럼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어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믿음과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고 모여 있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요한 20,19,26)라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못한 제자들에게 용서와 평화를 선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범한 잘못 때문에 잔뜩 움츠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너그러운 용서를 베푸시어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스에게도 봄별처럼 다가옵니다. 의심 많은 인물이라고 알려진 토마스는 사실 스승에게 매우 충성스러웠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유다 땅으로 가시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따라나섰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려 갑시다.”(요한 11,16)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에게 더 큰 신뢰심을 두었기에 그분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더 큰 충격을 받고 절망의 구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뵈었다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뒤에 토마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가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따뜻한 봄별처럼 다가오신 예수님 덕분에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이 한순간에 풀린 토마스는 스승 앞에서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크게 다치면 다른 이들과 관계를 끊고 자신 안에 갇히기 쉽습니다. 토마스도 바로 그런 위험에 처했지만, 다행히 동료들 공동체에 합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의 동료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참조)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 안에 주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건네시고, 성체성사와 다른 성사들을 통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제2독서 참조)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진 바를 서로 나누는 공동체(제1독서 참조)를 통해 주님은 따뜻한 봄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봄별으로 우리 자신이 부드럽고 착해지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봄별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 토마스의 불신

카라바조가 그린 ‘성 토마스의 불신’이라는 이 성화는 예수님께서 직접 토마스의 손을 잡아 당신의 가슴에 난 상처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장면입니다. 강렬한 빛과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마치 우리가 토마스가 되어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지는 것처럼 이끌어 줍니다. “(당신을)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너에게 주는 선물



이윤지 마리아 | 배우

첫 글이니 인사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
요?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이윤
지 마리아라고 합니다. 몇 달 전, 4주에 걸쳐 저의 이야기를
주보에 실어보자는 제안을 들었을 때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올해의 새로운 미
션으로 여기고 해보아겠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가족들과 주일마다 성당을 다닌 전
형적인 모태 신앙 신자입니다. 성당에 대한 저의 기억은, 미
사 시간에 유아방에서 뒹굴었던 단편적 기억을 제외하곤 첫
영성체 교리를 받던 초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시작합니다.
집안끼리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 한 명
과 저 그리고 제 오빠와 함께 첫영성체를 하였고, 예식이 있
던 날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진이
지요. ‘엄마가 모신 성체의 정체가 궁금해 입을 벌려 보라
며 입술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던 내가 영성체라니!’ 정말
황홀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기분일까? 주님께서
당신의 삶과 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데 성체를 받아 모시
면 내가 천사가 되는 것 아닐까? 저의 끝없는 설렘은 평소
에는 입을 수 없었던 하얀 드레스와 선물 받은 미사보 덕분
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날 다시 태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십대는 거의 성당 주일학교에서 안전하고 충만하
게 채워져 갔습니다. 그 흔한 중2병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
잘 넘어갔다고 하면 이 글을 읽으실 부모님께서 기가 차실
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은 그랬습니다. 교리가 끝나면 친구
와 성당 앞마당에서 놀았고, 시험 기간에는 성당 지하 교리
실에서 친구들과 공부 반, 수다 반으로 스트레스를 풀이며
지냈습니다. 평일에도 언제든지 성당에 오면 친구들 중 누
구 하나는 저와 같은 생각으로 먼저 와 있었고, 어쩌다 아무
도 없는 성당에 들어설 때면 웬지 특별한 사람이 된 것만 같

았습니다. 성가대 활동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행복한 추억으
로 자리한답니다. 제게는 성당 친구들이 제일 소중했고 친
구들과 함께 노래할 때 행복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는 미사 시간에 고개 숙이고 앉아 평평 울기도 했고, 한 해
를 마무리하는 겨울에는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며 꼭 찬 연
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저의 큰딸 카타리나는 초등
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잦은 이사에 아직 주일학교 경험
을 못 해본 큰딸에게 올해는 꼭 주일학교라는 주님의 세상
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첫영성체 교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도 든답
니다. 신자인 부모로서 유아세례 이후 제가 줄 수 있는 두 번
째 선물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엄마로서 마음이 설렙니다.

저의 엄마도 그러셨을까요? 오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
다. 신앙을 갖도록 키워주신 덕분에 성인이 된 지금 든든
하다고 말입니다. 딸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딸아, 엄
마가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우리 가족을 만난 것이고, 함
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란다. 이제 엄마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너에게 다시 선물할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4월

여성의 역할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의 존엄과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이
종식되도록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환대의 집



“말을 건네어 주는 이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함께 앉아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 마
음이 고마워 어디라도 따르고 싶은 이
가 있습니다. 그런 이가 되어주십시오.”

고봉동은 고양시 일산동구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매우 적은 도농복합 지역입니다. 고봉동 1인 가구는 고봉동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며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는 55세 이상 1인 가구가 고봉동 1인 가구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 열악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전무하여 고립된 섬마을을 연상하게 하곤 합니다. 이런 취약한 지역 환경은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이웃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위탁 운영하는 마을의 유일한 지역복지 시설인 고봉동 커뮤니티센터가 개관한 지 만 2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홀로 맞이한 죽음을 목도할 때마다 허탈함과 무력감에 빠져들니다.

고봉동에 거주하던 이광렬(가명) 씨는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어린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냈습니다. 미혼으로 평생 가족의 정을 한 번도 느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식 요리사로 일하며 열심히 살아오던 광렬 씨는 심혈관 질환을 얻게 되어 숨이 차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 정부 지원에 의지하며 홀로 생활하였습니다.

집 앞 양지바른 골목길에서 밑반찬을 기다리는 것이 광렬 씨의 유일한 삶의 낙이었으며 세상과 소통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그날도 직접 조리한 따뜻한 반찬이 담긴 가방을 가지고 방문하였지만, 광렬 씨는 집 앞 골목길에 나와 있지 않으셨습니다. 경찰과 함께 방에 들어갔으나 형제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홀로 하늘 여행을 떠난 후였습니다. 지금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어서 오시라고, 반갑다며 손을 내밀고 환하게 웃는 광렬 씨의 선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김형남(가명) 어르신은 올해로 86세가 되셨습니다.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큰길로 한참 걸어 나가도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 다니는 작은 편의점 하나 없는 외진 동네입니다. 식재료를 사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합니다. 그마저도 지난해 4월 집에서 낙상하여 거동이 어렵게 되어 식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소금과 밥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이를 발견한 이웃의 도움으로 센터에서 방문하여 밑반찬을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은 회복하여 산책도 하시며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사회복지는 영어로 welfare라고 합니다. 이는 직역하면 '안녕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안녕해지려면 기본적인 의식주와 사회적 관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안녕의 극단에 죽음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흔히 언급되는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교통사고를 막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 때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홀로 사는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환대의 집이 되고 싶고, 마을의 정(情)이 담긴 따뜻한 식사와 안부를 전하는 이웃 관계망으로 '사람에게 가는 길'을 찾고 싶습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4월 6일~5월 3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사회적 고립가구 식생활 지원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구원의 보편성을 위한 배타성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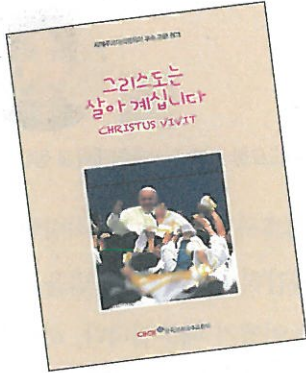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후,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바빌로니아에 멸망하게 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빌로니아 유배라는 이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것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반포한 '키루스 칙령'(기원전 538년 경)입니다. 이 칙령은, 피정복민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서 성소(聖所)를 재건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유대인들 역시 이 시기에 바빌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관한 역사를 전해주는 책은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입니다. 에즈라는 사제이며 율법학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수 있도록 이끈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 내부의 불의도 개선하려고 노력한 사회적·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앞장섰던 이 두 지도자가 공통되게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을 이방인과 분리시킨 일입니다. “모세의 책에 이러한 사실이 쓰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곧 암몬인과 모압인은 하느님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데 ... 백성은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이방 무리를 분리시켰다.”(느헤 13,1-3) 즉 에즈라와 느헤미야는 유대교의 율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성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유배 후에 돌아온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립하기 위해

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던 관습이나 이방인과 섞여 지내던 것들을 과감히 멀리하고 율법을 원칙대로 지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이 시기에 배타성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배 이후 귀환’이라는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제 2·3 이사야서가 대표적이며, 여기에서는 하느님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이사 49,6) 이 구절을 보면, 하느님 구원의 보편성에서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배타성을 강조하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그리고 이와 달리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제 2·3 이사야서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일어서야 할 이스라엘에는 우선 외부와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배타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민족들을 하느님 구원으로 이끄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보편성을 위한 배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청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루카 7,14)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1장(5-21항)을 읽고 성경에 등장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묵상해 봅시다. 구약성경의 요셉, 기드온, 사무엘, 다윗 임금, 솔로몬, 예레미야, 나아만과 히브리 소녀 그리고 젊은 과부 롯을, 신약성경에 나오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작은아들과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젊은 여인들 그리고 마태오 복음의 부자 청년을 살펴봅시다.

성경 속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 닿았거나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는 누구인가요?



하느님께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유진 스텔라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만하게 아버지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하고서 방탕한 삶을 살던 작은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며 묵묵히 일해 왔던 건 나인데... 아버지가 품어 주시는 작은아들이 알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큰 ‘넘어짐’을 체험한 후 제가 진정으로 서야 할 자리는 첫째 아들의 자리가 아닌, 회개할 용기를 가진 작은아들의 자리임을 느꼈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새 출발을 위한 용기를 낼 수 있던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작은아들과 그런 아들을 먼 발치에서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당신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던 저를 하느님께서 ‘왜 이제야 왔냐.’ 하시며 달려와 안아주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찾아가려는
민제 제노비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지만, 기대와 다르게 그저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2열왕 5,10)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권유로 그는 요르단강에서 몸을 씻고 나병이 치유되었으며, 그 시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나아만이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하느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보내셨

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기간 냉담 중일 때 같이 청년 미사를 가자며 저를 다시 성당으로 이끌어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르며 자기 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 이제서야 주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제게 보내주신 이들의 도움과 영향으로 하느님을 더 찾게 되고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적 활력, 꿈, 열정, 희망, 관대함을 잃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과부의 죽은 아들 앞에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복돋워 주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20항)

Catholic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에서
부서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02)762-5071~2



청년주보 큐알(QR)

실존하는 인간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리는 흔히 “사람 참 안 변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사람 참 간사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을 철학에서는 본질과 실존으로 설명합니다. 본질이 ‘사람을 사람하게 하는’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면, 실존은 ‘그 때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인간의 현실적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금세기에 와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뿐 아니라 산업사회 이후 엄청나게 변화된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 철학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 실존성을 해명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이런 경향을 잘 설명합니다. 이후 그를 실존철학을 정립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실존주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실존이 사람마다 고유할 수밖에 없으니 당연하지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신 앞에 선 개인’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분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고유할 뿐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응답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 결단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를 저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 실존이지요.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는 철학의 과제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실존을 해명하고, 그가 세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설명할 뿐 아니라, 형이상학적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는 인간이 처한 한계상황을 넘어서려는 것이 철학이며, 이는 초월적인 존재가 보내는 계시, 그의 표현대로 ‘암호’를 해명할 때 가능하다

고 합니다. 한계상황은 유한한 인간이 마주하는 수많은 실존적 상황이지요. 그와 비슷하게 프랑스 철학자 마르셀은 물질적이며 기계적인 문화에 함몰된 현대사회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의 소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망을 통한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절대적인 너’, 하느님을 향한 여정에서 찾을 수 있는 신비이며,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혁명이 만들어 놓은 현대사회는 물질과 자본이 흘러넘치는 사회입니다. 또한 놀랍도록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인간을 허무주의적이며 무의미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범람하는 경제적 풍요와 과학 기술 문화 안에서 공허해지는 실존을 이해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존하는 인간의 현재를 해명하려는 것이 이런 철학입니다.

최근 독일 철학자 슬로터다이크는 이런 사회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덕목은 자기 절제와 기예적 삶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절제하면서, 그를 위해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지하면서 자기 삶을 도야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필리피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자기 비움’(kenosis)으로 설명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 모두는 나와 너, 인간의 존재 의미를 드러내는 총체적인 태도에 관계됩니다. 이론적 삶이 아니라 생명의 아름다움, 삶의 신비를 감지하는 것이 기예적인 삶이지요. 그는 이러한 실존을 위해, 현대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비판적 삶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삶, 그 실존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실존을 해명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4월 7일)은 '부활 제2주일'로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날'로 교구청 각 기관 휴무합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홍성학 신부	제11 강남지구장(역삼동본당)	검 개포동 본당 주임서리
김동현 신부	태릉 본당 부주임	대기

정순택 대주교님,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의 희생자들을 향해 애도 메시지 발표(전문)

지난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로 13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희생된 모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분들이 부디

하느님 품 안에서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이사 38,5)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비와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부상 당한 모든 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에 빠져있을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폭력과 증오의 극단주의는 인간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류가 발전하는 길은 극단주의가 아니라 다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모든 종교와 사상이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통에 빠져있는 분들의 눈물을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기를 빌며 서울대교구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구청 알림

제27회 가톨릭 '교회와 세상' 강연회

대상: 사회교리학교 졸업생, 관심 있는 신자 누구나(회비 없음) / 내용: 기억관(단원고 4.16 기억 교실) 탐방, 강연회 '세월호 참사 10년과 우리 사회'
 때: 4월29일(월) 14시(명동 버스 출발 12시30분)
 곳: 4.16민주시민교육원(안산)
 참가신청(주관): 02)727-2249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때: 4월20일(토) · 4월21일(일) · 4월23일(화)
 때: 퇴강성당, 상주옥터, 신앙고백비
 신청: 4월8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자존감 되찾기(문종원 신부)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 문의: 02)727-2126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4월13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3층

직장인을 위한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4월13일(토) 10시~16시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제61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4월18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및 강론: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4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낙태 대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1) 4월 생명을 위한 월례미사
 때, 곳: 4월8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미리아채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곳: 4월9일(화) 13시30분~16시30분, 서울대교구 교구청 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프로그램 안내

1) 4월 유가족 월례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집전사제: 장인우 신부
 때, 곳: 4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 초기 자살유가족 집단상담 실시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전화접수
 총진행일정: 5월2일~30일 매주(목) 10시~13시(총 5회)
 모집인원: 15명 / 신청마감: 4월25일(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곳: 가톨릭회관 1층 소회의실 / 강사: 황순찬 교수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콘연구소 17회 회원전: 전관
 전시일정: 4월10일(수)~18일(목)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2024 역사서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 강: 조창수 신부
 내용: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와 후기 역사서
 때, 곳: 4월11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복된 본당’ 미사)
 때, 곳: 1413차 미사 4월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서울대교구 사리원 본당, 정봉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핵분당을 위한 목주기도 봉헌합니다 / 문의: 02)727-2420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 문의: 02)727-2047
 1) 영성 강좌

자기 돌봄을 위한 마음 챙김	4월9일~5월28일(화) 19시30분~21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 훈련	4월9일~5월28일(화) 19시30분~21시
주님께 다가가는 글쓰기	4월11일~5월16일(목) 19시30분~21시

2)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교회사	4월25일~5월9일(목) 19시30분~21시
신학	5월16일~30일(목) 19시30분~21시

3) 문화 강좌

나만의 이콘 만들기(원데이)	4월17일(수) 13시30분~16시30분
나만의 부활 십자가 만들기(목공예)	4월25일~5월16일(목) 19시~21시
생활 악기 성가 합주반(낮반)	4월25일~5월30일(목) 16시~18시
컬럼바 & 에그리타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기초반	4월25일~5월30일(목) 19시~21시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낮반)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이코를 물감으로 그리는 십자가의 길(저녁반)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주일 행사
 때, 곳: 4월21일 10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문의: 010-8573-0567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4월14일(월)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4월 낙태 후 화해 피정(착한목자수녀회)
 때: 4월19일(금)~21일(일), 5월17일(금)~19일(일)
 곳: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바울라 수녀

노들담수녀회 청년 성소주일 프로그램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20명
 때: 4월21일(일) 10시~16시
 곳: 노들담 수녀원(계산동) / 문의: 010-3930-6730

서울ME주말 신청 / 문의: 010-8334-4710
 더 좋은 부부, 더 좋은 부모가 되기위한 ME주
 말에 초대합니다 / 접수: seoulme.or.kr
 때, 곳: 4월19일(금)~21일(일), ME만남의 집(등촌동)

예수회 영신수련동반자 양성센터주관 피정
 때, 곳: 7월17일(수)~21일(일), 7월26일(금)~30일(화)
 4박5일, 예수회센터 / 이메일: ciskorprov@gmail.com
 문의(접수): 02)3276-7794 이냐시오 영성연구소

자비주일 행사(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음악과 함께하는 자비주일(고해성사·미사)
 때, 곳: 4월7일(일)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천주님의 성당은? 애덕이 가득한 우리 마음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월 둘째주(토) 4월13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11지구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4월12일 치유대피정 4월19일 양창우 신부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6차	5월17일(금)~2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7차	6월14일(금)~22일(토)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54, 010-4154-0885

1박2일	4월20일~21일, 5월25일~26일
8박9일	6월23일~7월1일, 8월5일~13일
40일	6월20일~7월29일

이혼 아픔 회복을 위한 비긴어겐 피정 2차
 때, 곳: 4월20일(토)~21일(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동)
 문의: 02)3789-2586 ICPE 선교회

18양천지구 성령 피정 / 문의: 010-9074-6527
 강사: 백준호 신부(작은형제회)
 때, 곳: 4월8일(월) 13시~16시30분, 양천성당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17일(금)~20일(월)·5월31일(금)~6월3일(월)·
 7월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기도따라하기 하루 피정
 기도따라하기 하루피정 / 인원: 15명
 내용: 강의, 기도, 질의응답 / 담당: 정규한 신부(예수회)
 회비: 3만원(중식 포함) / 문의(접수): 010-3845-3045
 때, 곳: 매월 셋째(수) 10시~16시 4월17일, 삼성동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분당 맞춤 피정 환영)
 때: 5월23일~25일(성모의 밤)·6월19일~21일·10월
 2일~4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계좌: 신한 131-022-218086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회비: 20만원(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25일(토) 14시~26일(일) 17시, 아론의 집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
 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순례와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차도)·5월
 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
 ~24일·5월26일~29일(추), 우도해변 포함 7월20
 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 제주성
 지순례 6월16일~18일·7월1일~3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순례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 일~24일, 7월19일~21일, 8월21일~23일, 9월1일~3일
성지 순례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 ~22일, 6월3일~6일, 6월15일~18일, 9월7일~10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4월12일~14일, 5월24일~26일
세월의 지혜영성 피정	4월24일~5월3일 / 65세 이상
엄마와 딸(미혼) 피정	5월11일~12일, 7월6일~7일
영신수련 9박10일 피정	8월1일(목)~10일(토)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정재건 신부 / 문의: 010-7393-7924
 때: 매주(월) 4월15일 14시~17시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멈춤, 그리고 씬-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씬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4월27일(토) 11시~28일(일) 11시, 노들담
 수녀회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1인 1실
 4월18일까지 접수 /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CLC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하느님의 선물, 내아이' / 문의: 010-9952-1821
 유아세례 부모교육 봉사자양성교육
 때: 5월4일·5일, 7월27일·28일, 9월1일, 11월30일
 곳: 과달루페 외방선교회(주최) 교육관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4월17일~5월1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정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타악회

수원교회사연구소 신앙선조 교리학교
 내용: 신앙선조의 중요교리(핵심정리 교리교육)
 강의: 정 바오로 신부(연구소장)
 때: 3월~7월 매주(일) 10시~10시50분(11시 미사)
 곳: 구산성지 성당 / 문의: 010-8588-7177

서강대학교 제3기 디지털자산 최고전문가과정 모집
 주요과정: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STO, DAO
 프롭테크 / 홈페이지: <https://sccc.sogang.ac.kr>
 때: 5월31일~9월27일 매주(금) 19시~21시30분(16주)
 곳: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101호 / 회비: 750만원
 문의: 02)705-8718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가톨릭독서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가톨릭커뮤니케이션협회)
 때, 곳: 19시30분~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회비: 각 15만원(총8회) / 문의: 010-2309-4509

- 1) 뉴스문해력 키우기
 개강: 4월9일(화) / 김지영(전 경향신문 편집인)
- 2) 생활과 문학-일상 속 글쓰기
 개강: 4월11일(목) / 김재홍(시인·평론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22일(월)~5월2일(목) - 전형일 5월18
 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
 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 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정규입학 캠프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학교설명회	4월13일(토) 오전 11시(예약 필수)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가톨릭성서모임 독서클럽 / 문의: 02)824-4363
 도서 제목: 미치고 흐느끼고 견디고(신달자 목상집)-문학사상, 2023년 / 접수: biblemove.com
 저자와 나누는 삶에 대한 묵상 / 강사: 신달자(시인)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MBSR)
 내용: 다양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과 더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마음챙김요가, 온몸살피기명상, 정좌명상, 걷기명상 등에 대해 배움
 강사: MBSR 지도자·심리학 박사 / 회비: 45만원
 때: 5월22일 개강, 매주(수) 18시30분~21시(8회)
 OT: 4월17일 19시 / 인원: 10명~15명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순교영성 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강사: 두봉, 정희완, 송봉모, 양승국, 유은희, 백남일, 김성태, 조한진, 조성일, 김재덕, 윤진, 박희정, 한진욱, 이경재, 류지인, 한장호, 윤홍민
 때: 매일 둘째·넷째주(목) 14시~16시
 1차시: 4월11일 개강미사(주례: 양낙규 총원장신부)·제1강 해외선교사의 삶 통해 나누는 순교영성 / 강사: 두봉 주교(파리의방전교회)
 곳: 순교성지 새남터성지 / 문의(접수): 02)3275-1485(www.kmartyr.com) 순교영성연구소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4월18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서울고속버스터미널(쑤)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인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모집

우니빠체 합창단원 모집
 오디션: 4월16일(화) 19시30분, 지축동 요한 성당 (전철 3호선 삼송역) / 자유곡
 지휘자: 한동일 / 문의: 010-4008-8640 총무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국악성가연구소
 오디션곡: 가톨릭성가 중 자유곡 1곡 / 남성 환영
 지도: 강수근 신부 / 문의: 010-2279-0255

시스피나시니어합창 단원 모집(혼성)
 그레고리오성가, 라틴어미사곡, 전통전례성가에 관심 있으신 55세 이상 남녀 교우(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다함께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피나음악원(추직, 신촌) / 010-9842-8818

무지카사크라 서울 합창단 단원 모집
 르네상스시대 무반주 다성음악 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만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지휘: 신기호 신부
 연습: (토) 오전 10시, 최양업홀 1층
 문의: 010-9464-0680 단장 / www.musicasacra.kr

안내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200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증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www.karf.co.kr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라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제주도 관광
 제주우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자아의 통합과 영성 1일 피정: 4월27일(토) 10시~16시
 주제: 자아의 탄생과 유년기 기억의 치유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사별, 부부, 영성상담 / 010-9146-7654
 담당: 이찬 신부(골품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본도출판사 편집부 신입 및 경력자 모집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 대상: 단행본 편집자·신입 및 경력, 외국어 가능자 우대(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문의(접수): 이메일(editor@bundobook.co.kr)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경찰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업무: 경찰교우 대상 교육·행사 준비, 진행 및 홍보·사무행정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대상: 견진 받은 교우, 사무행정 업무 가능자
 기간: 5월1일~2025년 9월30일(17개월)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4월16일(화) 18시까지 이메일(catholicpolice1@seoul.catholic.kr) 접수 / 문의: 02)742-9471, 3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구)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명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4월14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일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성심수녀회	4월20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예수회	수시	성소실(마포구 신수동)	010-8332-872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20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한국외방선교회	4월7일(일)	본부(성북동)	010-8715-284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신간

십자가의 길 고독한 사랑의 길

김진태 지음 | 김형주 · 김혜림 그림
생활성서사 | 88쪽 | 1만2천원
문의: 02)945-5987

저자가 '십자가의 길' 14처를 걸으며 묵상했던 바를 담은 묵상집이다. 김형주, 김혜림 두 화백의 작품이 주는 감동이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걷도록 초대한다. 자기 인생길을 소명 삼아 묵묵히 걸어가는 이들에게 이 책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특별한 사랑의 체험을 나눠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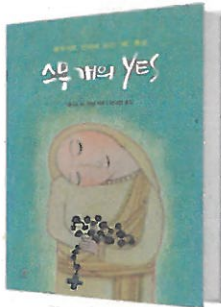


신간

성경의 길을 따른 어린이 여정 4단계 구약3: 역사서

생활성서사 지음
생활성서사 | 128쪽 | 1만원
문의: 02)945-5987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교재. 기존의 교리 교육 위주의 교재와는 달리 성경을 중심으로 재미있게 구성하였다. 초등부 주일학교 6년 동안 구약과 신약성경의 주요 내용을 골고루 공부하고 성경과 연관된 가톨릭 교리도 배울 수 있도록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간

스무 개의 YES

데니스 M. 맥닐 엮음
바오로딸 | 124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묵주기도의 신비를 스무 개의 '예'라는 관점에서 묵상한 책.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예'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때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자세로 응답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신간

마음이 일러 주는 하느님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성서와함께 | 220쪽 | 1만7천원
문의: 02)822-0125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번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는 누구인가? 주님이신가? 아니면 악마인가?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할까?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후 첫 10년 동안 식별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담았다. 그는 식별은 마음의 태도이자 지혜이고, 식별을 배우려면 공부를 해야 하며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 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2024 상반기 정기일정

일정 안내: 4월 13일(토) ~ 6월 8일(토), 수요일 오후 2시 ·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소요 시간: 약 1시간 |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신청 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직접 접속 또는 상단 우측 큐알코드 이용에서 신청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이래로 그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일정

명동대성당 가톨릭 미술 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

일정 안내: 4월 13일(토) ~ 6월 8일(토), 수요일 오후 2시 · 토요일 오전 10시 40분

소요 시간: 약 1시간 |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신청 방법: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직접 접속 또는 상단 우측 큐알코드 이용에서 신청

명동대성당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본당으로 한국에 천주교 신앙이 전해진 이래로 그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들으며 명동대성당을 새롭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약 큐알(QR)
인터넷 사전 예약 필수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신부 영명축일 축하식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미사
* 신부님께 하느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9시, 11시 미사 후 전신자 음식나눔잔치가
있습니다.

◎ 레지오 전단원 교육

일시 : 4월 7일(주일) 오후 1시 / 대성전
강사 : 박준양 세례자요한 신부님
- 서울 세나투스 지도 신부님
주제 : 레지오 마리아 단원의 시노드 여정
- 회심, 친교, 선교

◎ 2024년 연희동성당 요리대회 개최

남성 연령세대별 5개팀이 요리실력을 뽐냅니다.
요리대회 후에는 저녁식사 자리가 마련됩니다.
연희동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4월 7일(주일) 오후 4시~8시 / 지하식당
문의 : 기획분과장 (010-6470-4114)

◎ 4월 10일(수) 10시 미사는 없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교리실 사용은 가능합니다.)

◎ 여성구반장회합 : 4월 14일(주일) 12시/소성전

◎ 성소후원회 미사 : 4월 16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성소 주일 행사 관계로 4월 20일(토)
오후 3시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 연성회(70대) 모임

일시 : 4월 18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2부에는 식사가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송경원 베드로 회장 (010-5228-4707)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부활달걀 판매에 도움 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남성울트레야

일시 : 4월 21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트레야

일시 : 4월 23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청년 봄 피정

일시 : 4월 27일(토)~28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장소 : 복자사랑 피정의 집
신청기간 : ~ 4월 14일(주일)
참가비 : 45,000원 / 카카오 7979-88-91578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010-5377-8909)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3. 3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1,997	657 (33%)	614 (30.8%)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연령회 감사헌금

故 조인수 요셉 상가.....오십만원

◎ 감사헌금 (3월 25일~31일)

곽선모오천원 김유정이십만원
정수진칠만원 익명사십육만원
김재균오만원 이은주삼십만원
정혜운오만원 이지만일십만원
강신여재원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주님 부활 대축일)

교 무 금12,090,000원
성금요일헌금(예루살렘성지 특별헌금).....1,871,650원
파스카성야헌금.....3,845,000원
주일헌금.....7,951,600원

입당	136	봉헌	46,210,215	성체	182,164,498	파견	128
----	-----	----	------------	----	-------------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